기아 오토랜드 광주, 3년 연속 '50만대 생산' 돌파

작년 52만2천268대 생산 '역대 4위'

SUV 스포티지·셀토스 '효자 노릇'

첫 전용 전기차 EV5 성공적 양산

박스카 쏘울 생산종료 '역사 속으로'

기아의 핵심 생산 거점인 오토랜드 광주가 3년 연속 연간 생산량 50만대를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6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2025년 총 생산량은 52만2천268대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3년(54만1천100대)과 2014년(53만8천896대), 2015년(53만3천483대)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특히 전년(51만3천782대) 대비 약 1.7%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내수 부진 뚫고 '수출'로 승부…스포티지 22만대 '압도적'

지난해 실적의 일등 공신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SUV 라인업이었다. 준중형 SUV 스포티지는 한 해 동안 22만5천933대가 생산돼 광주 공장 전체 물량의 약 43%를 차지했다. 소형 SUV 셀토스 역시 15만9천466대의 견조한 생산 실적을 거두며 힘을 보탰다.

수출 시장에서의 선전도 돋보였다. 내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17만3천662대에 그쳤으나, 수출 물량은 34만8천606대로 전년(33만2천117대) 대비 약 5%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고환율 상황 속에서 고부가가치 차량인 SUV 위주의 수출 확대가 수익성 제고에도 기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V5 가세 '전기차 기지' 탈바꿈…쏘울은 아름다운 퇴장

2025년은 광주 공장이 미래차 생산 기지로 본격 전환한 원년으로 평가받는다. 광주 공장의 첫 전용 전기차인 EV5는 지난해 1만4천714대가 생산되며 성공적으로 라인에 안착했다. 기아는 EV5의 글로벌 출시 확대를 통해 향후 전기차 생산 비중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반면, 오랜 기간 광주 공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박스카 쏘울은 지난해 9월 생산 종료(단산)됐다. 쏘울은 작년 총 4만2천355대를 생산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외에도 봉고트럭 7만5천770대, 군수 및 버스 등 기타 차량이 4천30대 생산됐다.

◇3년 연속 50만대 돌파 지역경제 활력소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50만대 생산'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스포티지와 셀토스라는 확실한 캐시카우(수익창출원)와 EV5라는 미래 성장 동력이 조화를 이룬 결과"라며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혼류 생산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은행, 고객이 우대금리 조건 고르는 적금 출시

정일선 은행장 '셀렉트챌린지' 1호 가입

기본금리 1.8%p 등 최고 연 4.30%p

광주은행은 6일 새해를 맞아 가입 연도의 출생띠와 동일한 띠에 태어난 고객에게 행운금리를 제공하고, 고객이 직접 우대금리 조건을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적금 상품 '셀렉트챌린지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셀렉트챌린지적금'은 고객의 거래 패턴과 금융 이용 성향을 반영해 '공통 우대금리(행운금리)'와 '선택 우대금리'를 결합한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다. 고객은 제시된 여러 유형의 우대조건 가운데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1가지 유형을 선택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공통 우대금리(행운금리)'는 가입 연도의 띠와 동일한 띠에 출생한 고객에게 연 0.5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선택 우대금리'는 실속형/소비형/단골형/도전형 등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유형에 따라 최고 연 2.00%p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실속형은 급여·연금·사업소득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급여이체 실적이나 마이데이터 자산연결 등 일상적인 금융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소비형은 여행 및 소비 활동이 잦은 고객을 위한 유형으로, 해외송금·외국통화 환전 실적 또는 광주은행 체크·신용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단골형은 광주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거래 실적이나 요구불예금 평균잔액 등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도전형은 광주은행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유형으로, 만기해지 시 기준 금액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셀렉트챌린지적금'은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정액적립식 상품으로,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기본금리는 연 1.80%p(세전)이며, 행운금리 연 0.50%p와 선택금리 최고 연 2.00%p를 모두 충족할 경우 최고 연 4.3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5.01.06. 기준)

상품 출시를 기념해 1호 가입에 나선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고객 참여형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대한건설協 전남도회, 사회공헌기금 4천만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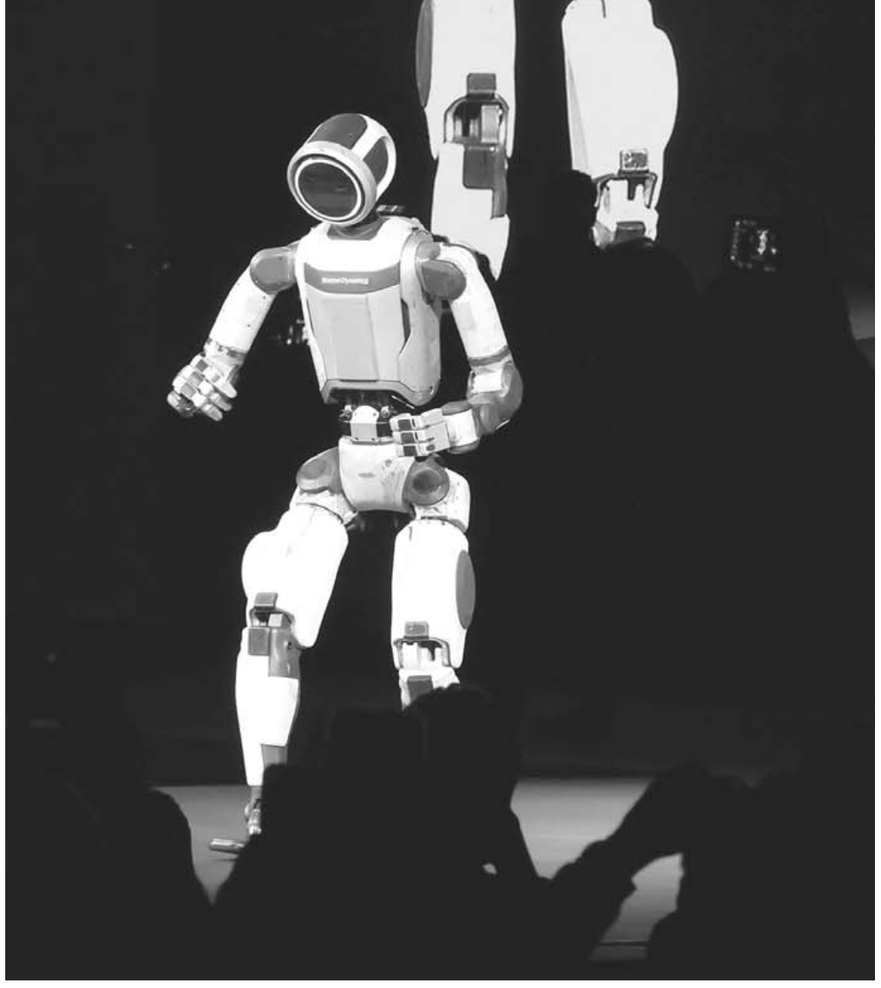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6일 "지난해 12월30일부터 이날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천만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에는 박경재 회장을 비롯한 전남도회 회장단 및 해당 지역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도회 소속 회원사를 통해 모금됐으며, 영암(사진), 장흥, 고흥, 구례, 목포, 장성, 나주 등 각 4개 권역의 시설들을 직접 방문, 전달했다.

박경재 회장은 "우리도회 소속 회원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역대표건설단체로서 매년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사회공헌 기부금을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현대차그룹,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시제품 공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시제품이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